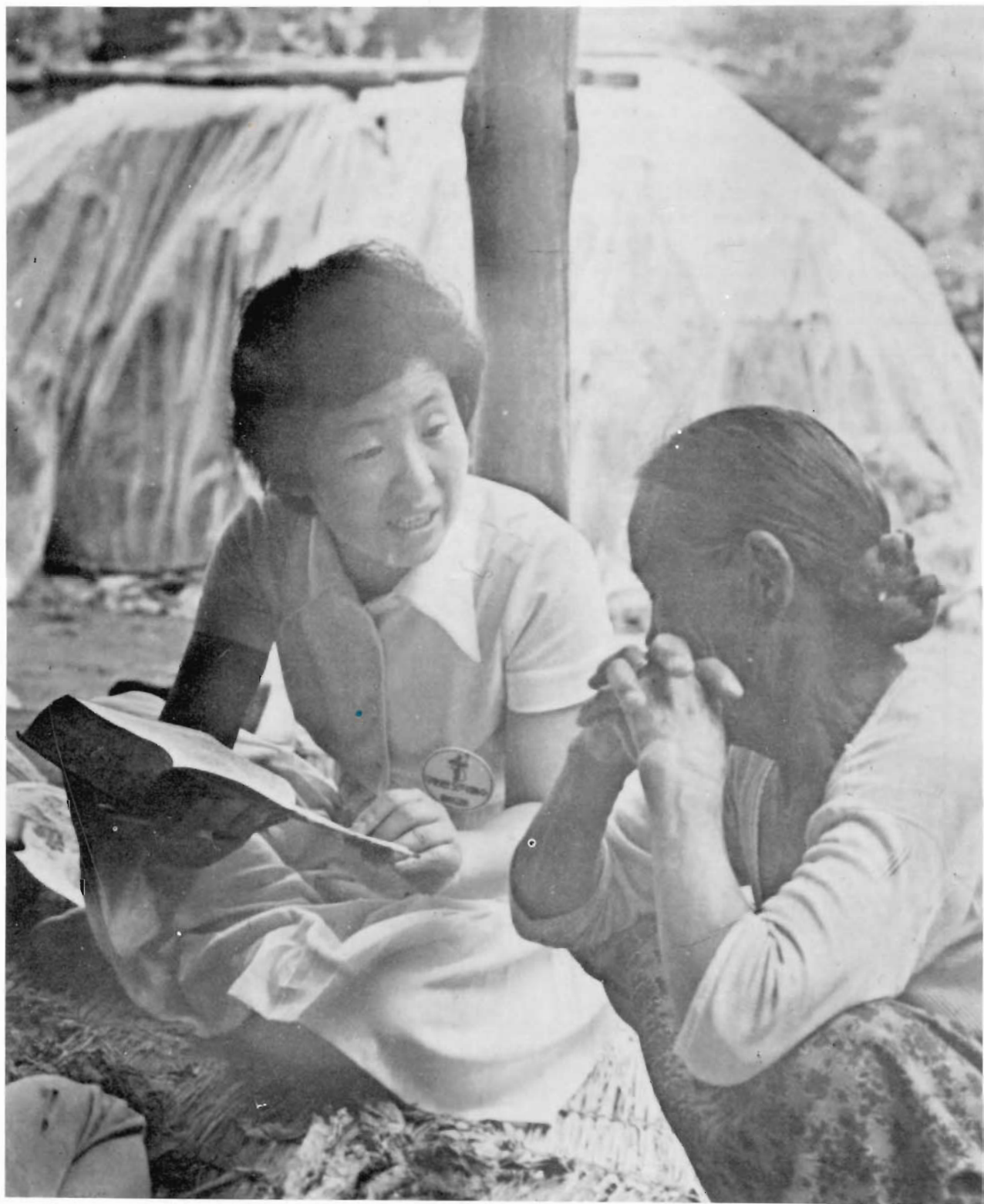


월간 증 현

'80 7·8월호



민족복음화의 올바른 이해

한국교회사의 특징중 하나는 초기시대부터 「민족복음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까지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1907년에 한국 최초로 이 기 풍 목사를 제주도, 1910년에 있었던 「백만명 구령운동」, 1920년에 「백년전진 운동」, 1945년에 「3백만 구령운동」, 1965년에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1970년에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1974년에 「엑스플로 '74」, 1978년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1980년 8월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세계복음화 대성회」등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민족복음화를 얼마나 갈구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건들이다. 이것은 「민족복음화」라는 구호조차 생각해 볼 수 없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비하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계신 줄 확실히 믿는 바이다.

이제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민족복음화」를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심기워져 만나는 사람마다 신자요, 가는 곳마다 교회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동등한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을 갖는다면, 이는 엄청난 민족적, 영적 교만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 민족복음화의 이상을 교회가 정부를 지배하는 중세기적 기독교 국가의 건설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성경적이 아닐 뿐 아니라, 그 결과는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실감있게 증언해 주고 있다.

셋째로, 민족복음화의 진정한 의미는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복음이 심어지고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순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한결음 더 나아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러나는 것이다. 민족 전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북한이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민족복음화는 필히 북한선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로, 민족복음화가 5천만 민족의 한 개개인의 구원에만 그쳐서는 만족할 수 없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등 제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며, 한 민족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민족복음화의 궁극적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민족복음화는 민족 전체가 산 제물이 될 뿐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한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민족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민족에게 드러나야 한다. 초대교회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교회에 빛이 되었듯이 한국 교회는 세계에 빛이 되어야 하며,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와 로마에 복음을 증거한 모체교회가 되었듯이 오늘의 한국교회와 복음화 된 한국민족은 전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민족복음화」는 세계선교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한국교회사에 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땅에 대성회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한국을 향하신 특별하신 섭리가 계신 줄 믿고 한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두려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기다릴 뿐이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한국의 성도가 1000 만명이 되며, 한국선교 100주년이 되는 1984년에는 2,000만 성도가 되고, 1990년대에는 삼천리 강산은 제단되고, 5천만 민족은 제물되는 영광스러운 시온의 때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한다.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8권 제 7호

통권 79호

— 7·8월호 차례 —

월간충현

권 두 언	민족복음화의 올바른 이해	주 간 · 2
이달의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김창인 · 4
지 상 특 강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김준곤 · 6

• 특집 / '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

	• 대회중의 주요집회는 ?	편집부 · 9
	• 예수한국 총력전도의 현황	손경수 · 10
프 로 필	협동목사 프로필	편집부 · 17
종공기독교	종공에 다시 탄생된 기독교	번역 / 오태용 · 18
기독교윤리	인구문제	김하진 · 20
편집실칼럼	당신은 찾았군요	이형수 · 22
찬송가감상	나 어느곳에 있든지 (새 480 장)	김하진 · 22
도서 정보	6월중에 들어온 도서	도서실 · 23
책 소 개	미국의 10대 교회	유국남 · 23
구 역 소 식	6월중 새 교우, 결혼, 별세자 명단	편집실 · 26
선교 소 식	해외선교지 소식 · 기도제목	해외 복음 선교회 · 28
독 자 의 글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확신	조순자 · 24
주간지만나	시편 68편	김창인 · 25
교 계 소 식	6월중 교계소식	편집실 · 30
교 회 소 식		편집실 · 31
답 한 다	재림전의 상황은 ?	김창근 · 35
7·8 월행사		편집실 · 34
편집하고나서		편집실 · 34

표지설명 / 7·8월의 각부의 수양회, 농어촌파송 전도등으로 우리 더위를 잊는다. 무더운 8월에 금년에도 우리는 강원도 지방으로 전도대를 파송한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위에서 살아가는 형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인간을 망치고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못된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신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에도 유익을 끼치며 살게 하는 좋은 것들을 따라 사는 자가 있습니다.

1. 못된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1)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양심의 등불이 꺼지기 쉽고, 권세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계획이 너무 잔인합니다. 명예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선전만 앞세우게 되고, 남녀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격이 파산한 배와 같습니다.

인간들이 여러가지 욕심을 품고 마음에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별 수 없이 더러워지고 악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 기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을 앞세우고 따라 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경솔해 집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남에게 폐를 끼치기가 쉽습니다. 필경은 자기가 망신 당할 때에 헤어날 길이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3) 세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제 2차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세계를 다 자기 손에 넣고 꺾어서 흔들고 자기가 먹어 버리고 소화를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는 일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을 따라 사는 자가 많습니다.

4) 미신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하면서 갖가지 미신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미신, 저 미신에 끌려가며 사는 사람은 지식은 박사라도 행동은 어리석은 바보짓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생활이 더러워지고 마음도 악해지고 끝내는 남이 꿈도 꿀 수 없는 못난 짓을 합니다. 필경에는 불행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2. 좋은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1)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부탁, 명령, 교훈 등을 머리에 기억하면서 부모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복을 받고 나아가서는 장수하는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2) 스승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천대 받고 나이 많은 분이 업적이 없으면 존경을 못 받습니다. 실력자가 누가 됩니까?

선생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쏟아져서 생활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갖가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손떨자가 없는 안전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복을 받으면 실패를 모르는 성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 놓으시고 영육에 필요한 것을 안

기워 주면 모자라는 것을 모르는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실력으로 준비를 갖추면 패전을 모르는 승리자의 자유가 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어 평안을 주시려고, 인도의 복을 주시어 성공을 주시려고, 보급의 복을 주시어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승리의 복을 주시어 자유케 하시며 마침내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조건을 내어 놓으십니다.

3.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공평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현법을 놓고 양심에 비추면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안에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바로 알아 바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평이 없으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공평이 없으면 교회에 부흥이 없습니다. 공평이 없으면 나라에 발전이 없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요구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인자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며, 인자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너무 잔인하고 고약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잘못을 범했을 때는 바꾸어 생각해 보고 이해해 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때까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보고 업수이 여기지 말고 도와 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이 범죄할 때에 범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까지 미워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3)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산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바다의 파도와 같은 환난이 온다 하여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와 동행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하고는 절대로 동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아 볼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도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선생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은혜를 잊어 버리지 않는 사람이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자기 책임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까짓 것을 다 일이라고 해" 절대로 안 그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의 있는 힘전부를 쏟습니다. 요셉은 겸손하기 때문에 노예생활에도 충성했고, 감옥생활에도 충성했고, 궁중생활에도 충성했습니다.

셋째로 모든 일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속담에 있는 말처럼 둘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실수할까봐 조심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네째로 자기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꿈에도 핑계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 내가 잘못했어.' 깨달으면 그 시간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우물쭈물 연기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에 피로와도 내일에 행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손해가 나도 인내하며 낙심치 않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뭇사람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합니다. 뭇사람이 잘못할 때는 대립하거나 반역하지 말고 울면서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란 내 마음에 맞는 것에 '울습니다'하고 뭇사람이 잘못할 때에 대립하거나 반역하지 않고 눈물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배정받은 이 24시간을 어떻게 살며 무엇이라 사시겠습니까?

내 욕심, 내 기분, 권세, 더럽고 한심한 미신따라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도님의 교훈, 스승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중현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로 남은 여생을 공평한 사람, 인자한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실력있는 성공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김 준 곤 목사

(CCC대표, '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준비위원장)

광기의바람 막스주의, 허무주의의 온갖 세속의 바람이 이 시대를 휩쓸어간다.

민족사의 외부적인 흐름은 여러 갈래가 있겠으나 이 민족사의 깊숙한 곳의 흐름은 예수의 강과 막스의 강이다.

복음화 운동, 민주화 운동, 공산화 운동, 세가지는 큰 흐름이다. 그러나 민주화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이다. 고정된 성격은 아니다. 민중의 세력이 형이하학적인 세력이라도 투표에 의해 좌우되므로 많은 변수와 위험을 내포한다.

남북문제, 친구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있으나 크게는 예수와 막스의 문제인 것이다. 6·25는 이 둘의 충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남한에서부터 공산당을 몰아내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 남겨 놓았다. 북한으로 인한 도전으로 복음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모든 정권의 과정은 민족사의 흐름이 예수의 강이 되게 하기 위한 섭리이다. 적그리스도의 화신은 세가지로 나타난다.

① 정치, 경제, 군사적인 형태로 히틀러가 그 예의 하나이다.

② 사상적인 형태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체제로 사회제도를 말하는 공산주의이다.

종교적 형태로 기독교 안에서 이단과 배교로 나타난다. 이것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 기독교의 신흥종교로 나타나는 것과 교회안에서 신학적인 형태로 역사하는 것으로 사회주의나 신비주의를 입고 나온다.

로마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원시적이어서 박해와 핍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순교로서 기독교를 확산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의 시련은 내부에서부터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주면서 공산당보다 더악성의 적이 우려 안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바라바 신학이다.

예수시대에 있었던 종과 가운데 세례요한과는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헤롯파는 모압과 유대인의 피를 가졌다. 이들은 종교를 정화시켰다. 사두개파는 세속의 화신으로 부활을 부인하며 산헤드린을 독점하여 종교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로서 소수의 엘리트로 배타적이었다.

엣세비파는 온전히 탈속하여 금욕과 고행의 수도생활을 했다. 열심당이 있는데 과격분자들이었다.

혁명파요 국수주의자들이었다. 분노와 보복의 화신이었다. 바라바는 여기에 속했다. 민중의 스타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기전 바라바와 예수, 두사람중 하나를 놓아 주고자 할 때 민중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청했다. AD70~99열심당들은 반로마전쟁을 일으켜 사상 가장 비참한 비극과 나라없는 민족을 초래케 했다.

예수님은 자기들 운동에 끌어 들이려 했으나 예수님은 초연주의자였다. 기독교는 어느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상이나 제도속에 고정될 수 없다.

그들에게 예수는 영원한 이단이다. 예수는 새로운 씨앗이기에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 새출은 새 가족부대에 넣어야한다. 질적으로 새것이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배타적이다. 예수그리스도는 세상의 명과 세상의 체질과 세상의 생리를 싫어한다.

세상의 어둠은 빛을 감당할 수 없다.

바라바의 명분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만 수단은 잘못되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라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도 로마 못지않게 이기적이고 억압적일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 그들은 자신의 정권을 보다 덜 부패하리라고 미신처럼 믿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다만 이름만 바꿀 뿐이다. 가진 자도 안 가진 자도 똑같이 탐욕적이고 거짓되다. 학생도 정치가 못지않게 이기적이다. 갖가지 얼굴을 가지고 형



세한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소질은 갖고 있다.

정치는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 신앙은 절대적이다. 정치문제를 신앙화 시켜선 안된다.

한편 복음적 역사관식을 가져야 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현실은 정치 경계가 현실의 전부가 아니다. 현실은 더 깊은 데 있다.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현실 중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현실 감각이 예민한 것이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술가였고 경제적이었고 건강했으나 어리석은 자다.

정치, 경제, 현실 모든 것에 대해 예민했다해도 그가 하나님이 없는 자라면 어리석은 자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은 사랑의 노예가 될 때, 자기가 죽고 예수가 자기 안에 살 때 진정한 자유인간이 된다. 죄를 지은 자는 사탄의 노예 자아의 노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기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전도자의 감각이었다. 대통령은 민중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 후보자는 하나님 앞에서 별 거 없고 서야 한다. 대하 17:14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이라고 했다. 기독교인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를 지배한다. 유대는 열강사이에서 요시아왕을 세워 안전하게 살았으나 요시아왕이 죽자 민심이 흩어지고 저마다 살 길을 찾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다. 전 민족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해야 살 수 있다.

진정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급한가? 무엇이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무엇을 가장 민족에게 주고 싶은가? 기드온의 300명, 여호수아, 여호사밧, 니드웨성 에스터등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살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신28장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한다.

이제 예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겠다. 이 나라와 민족에 예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성령을 주셨다. 원자력보다 더 큰 기도의 힘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

우리는 인류에게 줄 벵시지를 가지고 있다.

최후 최대의 벵시지가 있다. 이것은 피물은 현실이다. 이밖에는 살 길이 없다. 모든 소리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예수의 소리가 절대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한가지 소명 밖에 없다.

먼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은 더하신다.예수의 소동이 일어나야겠다.

이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실한 뜻은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는 84년으로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80년대의 문턱에서 한국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우리 하나 하나가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옛날 이스라엘의 모세나 바울도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까지 동족의 구원을 열망했거니와 에스더의 죽음으로 죽으리라 결사적 금식기도, 스코틀랜드를 주유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유소서의 잔낙스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합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삼

년내에 큰 부흥이 일어나(합3:2) 국민의 50%, 80%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38선이 터지고 이 땅의 상처가 고쳐지며(대하7:14) 에스겔 해골매가 생령의 군대(겔37장)되어 세계 만방에 한국 주도의 선교시대의 장이 열릴 날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지상에 일찌기 완전한 기독교 국가란 존재한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지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 민족쯤은 한 민족쯤은 단 한번만이라도, 단 한 민족쯤은 송두리째 그들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바쳐지고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그 기적의 도전 앞에서 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마치 여인들에게 아기가 잉태되듯 그 종들에게 큰 꿈을 심고 환상을 잉태시킨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믿음과 기도로 가능케 하는 일, 그것이 성서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다음과 같은 비전을 보고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힘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성서적이 아니라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민족의 가슴마다 피물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 이 나라 모든 것이 뿌리째 복음화되는 날 예수 한국의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과 김매는 농부들의 입에서도 샘물이 터지듯 찬송이 절로 터지고 각급 학교교실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성서가 최우선 필수과목으로 배워지고 깃방들이 모조리 성서교실이 되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옛날 쌍놈이 된 것만큼이나 부끄러워 혼인길도 막히는 민족,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 마다 어머니의 모태서부터 기도와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며 국무회의나 국회가 국정 대

소사를 논할 때 의례히 주의 뜻이 앞서고 경건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수의 나라 동방의 성민 코리아, 세계의 시장에서는 예수한국이 만든 나사못 하나, 단추 하나까지도 예수 한국의 신앙과 양심과 정성이 보증수표처럼 의례히 믿어지는 민족, 순종하는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불변의 대원칙이며 성서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예수 한국의 모습이 세계의 눈에 신기하고 기적같이만 보일 때 그들의 교과서는, 한국의 현실 부흥은 예수의 터위에 세운 건물 같고 신앙의 밭에서 자라난 무성한 나무와 같다고 증언 할 것이다.

그리하면 기독교의 옛성지 예루살렘이나 로마를 관광하는 사람보다 살아계신 예수 한국의 성령의 현장에 성민 관광의 발이 줄을 이을 것이며 그들은 입을 모아 "코리아, 그대는 과연 동방의 빛"이라 할 것이다.

모이게 하소서 (삼상 7:5행 2:1)

옛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미스바에 모였듯이 그렇게 세계의 한 민족도, 한국의 한 교회도 한 마을도 빠짐없이 한 곳에 모이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로, 찬송과 간증과 헌신을 한 덩어리로 모이게 하소서 참가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소서(골2:28)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고 낮은 비의 역사(호6:3)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중의 주요집회는 ?

금년에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기독교대회중 최대 규모가 될 이번 대성회의 규모는 매일밤 대집회외에 70여 교회에서 집회와 세미나를 열고 150여명의 국내와 강사들이 말씀을 전한다.

이들 강사중에 한경직, 김창인, 김준곤, 황성수, 박선희, 이종윤, 김희보, 신성종박사도 포함되어 있고 외국강사중에 전 유엔총회 의장인 찰스 말리크박사, 달표면에서 시편을 낭송한 우주비행사 어윈대령, CCC 총재 빌 브라일박사, 미국 10대교회중에 하나인 교회를 시무하는 존 라이트박사, 독일 튜빙겐대학교수 피터바이엘 하우스박사, 폴러 신학교수 도날드 맥가브란박사, 안이숙여사, 공산 캄보디아에서 사선을 넘어 온 CCC국제본부 간사 백후웅 타임씨가 있다.

여의도에서 여는 전체 집회로는 11일 밤 전야집회(저녁 7시30분부터) 12일부터 15일까지의 본 집회(저녁 7시30분부터) 전야집회(밤10시부터), 오전집회(오전 9시부터)가 있고 서울 50개처 교회에서 대회 기간중에 연속적으로 부흥사경회(오전 5시부터)를 열어 성령의 불을 곳곳에서 붙여 전면적 복음화의 기운을 높인다.

대회기간중의 주요집회로는,

◇ 목회자 세미나 ◇

영락교회에서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8월12-15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 강사로는 한경직목사, 빌 브라일의 2인
- 회비는 1만원이다

◇ 고등학생 수련회 ◇

- 장충체육관에서
- 8월12~15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전국 남녀 고교생을 대상으로
- 강사는 백후웅 타임, 절보른, 광규석, 이영무
- 회비는 1천원

◇ 전국주교교사 세미나 ◇

- 광림교회에서 주교교사를 대상으로
- 12~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강사는 이순한, 김득룡, 한승호목사의 14인

◇ 국제 부녀 수련회 ◇

- 류관순기념관에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 8월12~15일까지 오전 9시와 오후 1시 2차례
- 강사는 브넬 브라일여사, 마대리, 안이숙, 고은아

◇ 신학 핵심 문제 강의 ◇

- 전경연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 교역자를 대상으로

- 8월12~15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 강사는 한철하, 이종윤, 김명혁, 신성종, 전호진, 안봉호, 정규남박사.

◇ 참조나? 진화나? ◇

- CCC 강당에서 국내외 관제지도자 및 관심있는 이를 대상으로

- 8월 12~15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 강사는 짐윌리엄스·찰스다슨, 주영흠박사의 2인

◇ 국제 청장년 합숙 수련회 ◇

- 문화체육관 및 인근학교에서 남녀 청장년을 대상으로

- 8월 11~16일까지
- 강사는 박선희, 김의환, 빌 브라일의 15인

◇ 국제 대학생 합숙 수련회 ◇

-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 8월11일~16일까지
- 강사는 최계산, 마이엘하우스, 제임스어윈, 칼렌리박사등 15인
- 회비는 8천원

◇ 여교역자 수련회 ◇

- 정동 제일감리교회에서 여교역자를 대상으로
- 8월12~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 강사는 장상, 주선애, 랜덤마살 헬리존스목사 등 13인

◇ 평신도 특수 그룹세미나 ◇

- 전경연회관·대회의실에서 과학자, 법조인, 의료인, 교육자, 언론인, 예술인, 교수등을 대상으로
- 8월 12~1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 강사는 김준곤, 주영흠, 랄프윈터박사등 15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합 3 : 2)

— 예수한국 총력전도 —

내가 살고 우리가 살며 이웃이 사는 생명운동

손 경 수 집사

(정년부교사·월간중현 편집위원
·기독신보 편집국장)

◇◇◇.....역사적인 '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매우.....◇◇◇
◇◇◇.....방대한 행사에서 각 개 교인이 어떻게 참여해야 좋은 지 또한 어.....◇◇◇
◇◇◇.....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바가 많아 월간중현에서 금호의 특집으◇◇◇
◇◇◇.....로 다루어 기독신보 편집국장인 손경수집사의 도움을 빌어 정리, ...◇◇◇
◇◇◇.....소개해 본다. 민족적, 역사적인 이 대회에 한사람의 방관자가 없.....◇◇◇
◇◇◇.....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자>◇◇◇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8월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서울 여의도 5·16광장에서 역사적 막을 올린다.

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준곤목사)는 이번 대회를 위하여 1년동안 준비해 오고 있다.

“미스바처럼, 오순절처럼 모이자, 요엘서의 금식 구국성회처럼 모이자, 성령의 열풍이 불게 하자, 여름 휴가를 여의도로!”

기도의 불씨를 모아 성령의 용광로를 만들자, 작은 불방울처럼 모여 예수께 큰 강을 이루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격정적 표어가 눈에 보이는 광고 게시판을 비롯하여 각종 팸플렛, 선문(일간·교제), 방송 등에 넘치고 넘친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자”는 이 맘모스대회가 한국 서울에서 모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이 모임을 통해 한국교회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한국 선교 백년에 어떤 역사를 점칠시킬 수 있는가?

이제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 준비위원회 홍보국(국장 최금남)의 자료에 의해 온 교우들이 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 비전을 찾는 민족이 되어야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6 : 13)

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준곤목사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대회 취지 설명에서 “이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

실한 뜻은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오는 84년 한국 선교 백년을 맞이하는 80년대의 문턱에서 한국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나고 거듭 묻고 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우리 하나 하나가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했다.

° 옛날 이스라엘의 모세나 바울도 동족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까지 동족의 구원을 열망했거니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사적 금식기도,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의 존낙스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겠다.

김복사는 「지상에 일찌기 완전한 기독교 국가란 존재한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지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 민족쯤은 단 한번만이라도, 단 한 민족쯤은 송두리째 그들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바쳐지고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그 기적의 도전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다.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마치 여인들에게 아기가 잉태되듯 그 종들에게 큰 꿈을 심고 환상을 잉태시킨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믿음과 기도로 가능케 하는 일, 그것이 성경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고 설명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 : 8)의 자원봉사가 민족의 가슴마다 피물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뿌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제철이 오게 하고,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 이 나라 모든 것이 뿌리째, 송두리째 복음화 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정말 이 나라가 복음화 되는 날, 예수한국의 두메 마을은 불온 우물가의 여인, 김메는 농부들의 입에서 샘물이 터지듯 찬송이 절로 터지고 각급학교 교실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성경이 최우선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배워지고, 갯방들이 모조리 성경교실이 되고, 예수 안믿는 것이 옛날 쌍놈이 된 것 만큼이나 부끄러워 혼인길도 막히는 민족,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모태서부터 기도와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며, 국무회의나 국회가 국정 의대 소사를 논할 때, 의례히 주의 뜻이 앞서고 경건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수의 나라 동방의 성민(聖民) 코리아가 되게 해야 한다.



◀'80세계복음화대성회의 준비위원장인 김준곤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세계의 시장에서는 예수한국이 만든 나사못 하나, 단추하나 까지도 예수한국의 신앙과 양심과 정성이 보증수표처럼 의례히 믿어지는 민족 순종하는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불변의 대원칙이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믿어야 할 것이다.

□ 대회 배경 및 목표

1973년 5월 빌리그레함 전도대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어 대규모 전도의 테프를 끊었다.

이 때는 모든 재정이 위원에 의해 진행되었고, 행사 자체도 빌리그레함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행사가 성공리에 끝나자 그 다음해인 74년 8월 「엑스플로74」가 개최되어 성령의 연쇄폭발이 있었으며, 이러한 성령의 연쇄폭발은 “77년 민족복음화 성회”를 통해 계속됐다.

□□□…… 지상에 일찌기 완전한 기독교 국가란 존재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지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 민족쯤은 단 한번 만이라도, 단 한 민족쯤은 송두리째 그들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바쳐지고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가 말로 그 기적의 도전앞에 서 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

특히, 동침회기간중에 「80세기 복음화대 성회」를 선언하고 오관석목사를 중심으로 부흥목사들이 18개월간 준비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바 있었으나 보다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김준곤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모든 준비를 위임하게 되었다.

목표 - 지상명령성취

이러한 성령의 연쇄폭발은 한국 선교 100주년을 맞은 84년 이후를 향한 한국민족복음화와 한국 주도의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계기가 되며 지속적인 전략의 봉화가 될 것이다.

대회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 년 내에 성취하려는 것이며, 우리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에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 국가의 기독교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도한 결과가 교회성장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이것을 모델로 세계 각국으로 이식, 수출하여 각 나라마다 국가 단위의 전도전략을 세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인류 최대, 최후의 전도를 시도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며, 직접 참여하는 모든 교회의 교인수를 80년 8월까지 배가시키는 일이다.

한국 선교 백주년 되는 84년까지 한국의 온 교회가 연합으로 총력 전도를 하여 매년 20~30%씩 증가한다면 기독교 인구가 2천만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80년대에는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교회를 초청하여 한국의 성령 현장을 보여 주며, 오순절 역사와 같은 한국에 성령의 불을 세계 각국에 붙여 가도록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수천, 수 만 명의 의사, 간호원, 기술자, 교사, 교수, 농사지도원, 노동봉사원, 변호사, 학생 등을 사

랑의 봉사단 형식으로 파송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한국 주도의 세계 선교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대형전도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대형전도는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많이 들고 조직적이어야 하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므로써 오는 필요악의 발생등, 그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많은 불신자를 일시적으로 전도하고자 할 때 개인대 개인의 전도활동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게 한다는 일도 무척 중요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총력전도 내지 협력전도가 복음화사업에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4 번째의 대형집회

예를 든다면 전쟁의 경우처럼 개개인이 산발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전선의 전태으로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기업의 원리에 있어서도 구멍기계식이 아닌 주식회사식의 기업으로 할 때 많은 이윤을 얻는 것처럼, 처음부터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사를 가진 교회들로 연합해서 고도의 협력과 집약의 역학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3번의 대형집회가 있었는데, 공통적인 효과를 말한다면, ① 예수님을 전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의 계절이 온 것 같은 부드러움이 생겨 전도의 분위 크게 열리고, ② 기도와 전도,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교회마다 모이는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와 전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며, ③ 많은 기도의 불씨가 모아져 용광로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참석한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인생의 제 2의 전기를 체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전도를 위한 대형 집회들이 교회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정말 이 나라가 복음화 되는 날, 예수한국의 두
메 마을은 물론 우물가의 여인, 김메는 농부들의 입에서 샘
물이 터지듯 찬송이 절로 터지고 각급학교 교실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성경이 최우선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배워지
고 껏방들이 모조리 성경교실이 돼, 예수 안 믿는 것이 옛
날 쌍놈이 된 것 만큼이나 부끄러워 혼인길도 막히는 민족,
이땅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대학생들을 동원하여 74년
7월과 75년 7월 두차례에 걸쳐 약 1천교회의 주
보를 수집하여 통계를 냈는데, 1년동안에 33%인 1
백만의 신자가 증가되었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74년의 3백 만 신자가 78년에 6백 만 명으
로 늘어났다는 것은 대형집회 후에 나타난 교회성장
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이면에는복합

최초의 교회요, 표본적인 교회였던 사도행전 교회
는 전도가 최우선주의였고, 지금 모든 정조가 목시
록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 말로 전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좋은 기회
이다.

□ '80복음화의 전략

적인 요
소가 없
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성장
이 가속
화된것만
은 틀림
없는 사
실이다.

“만삭 8개월, 한 두 번 힘쓰면
기독교 민족이 태어난다”
'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8월12일~15일 서울 여의도 5.16광장서

80복음
화는 전
도의 문
제점을발
굴, 그것
을 시정
실행케되
는데, 그
것은 무
엇을 어
떻게 말

□ 전도의 비상사태 선포

한국에는 사상최대의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
다. 이 복음의 문이 닫혀 버리기 전에, 기회가 가버
리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2, 3년 내에 큰 부흥이
일어나야겠다.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행 1:8)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으로 절대 순종해야 하며 전
도의 시기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다.

또 예수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그리스
도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언해야 할 책
임이 우리에게 있다.

혹 물없는 고기는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
없는 우리의 생활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도의 비상사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전도하
도록 강권하고 계시며, 전도는 내 이웃에게 주는 최
고의 현실적인 사랑이며 구원이요, 예수부흥, 영적
부흥은 현실부흥의 최선의 활력소이기 때문이다.

해야 할 지를 잘 모르고 전도하는 훈련이 부
족하고, 전도의 실천부족, 구체적으로 피전도자를 위
한 기도부족, 그리고 결신(決信)으로 끝내버리므로
계속 돌보아주는 육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
러났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 이번 대회에서는 모든 신자
가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방법을 훈련시
켜 7백만 신자 전원이 2,900만 불신자 전원에게 전
도할 수 있도록 전교회의 성숙한 신자중 15%를 뽑
아 소목자(小牧者)로 훈련시키고 이들이 다시 전교
인을 제자와 시키면 전략이다.

즉 승법변식의 제자와 훈련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만일 한국의 7백
만 신자중 단 5%인 35만명이 한달에 1명씩만 전
도하여 신자가 되게 한다면 1년 동안에 4백20만명
이 늘어나서 1,120만이 되고, 이 수의 5%가 다시
이렇게 전도한다면 2년 후에는 1,792만이 되며, 3
년 후에는 2,867만이 되고, 4년 말에 가서는 4,587만
이 된다는 계산이다.

□□□…… 또 '80복음화전략은 불청전도의 분위기에서 요청전도예로의 분위기 조성이다. 전도자와 피전도자 사이의 심리적 저항감을 해소하고 접촉하기 쉬운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매스컴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캠페인을 벌이는데 전반기에는 '나는 찾았네'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마치 사도행전의 사건처럼 다 놀라 서로 말하기를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서로 물어 ……………□□□

그러나 이런 전략과 계산에 앞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대기도운동(大祈禱運動)이다.

빌리그래함은 말하기를 교회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그리고 세째도 기도라고 말한 바 있다.

대기도운동으로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 에스겔 해골 골짜기같은 민족적 부흥사건이 이 땅 한국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매스컴을 통한 총동원 전도이다.

일정한 기간동안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등 문명의 좋은 기기인 매스컴을 최대한 활용,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총동원하자는 것이다.

포스타, 전단, 팻지, 현수막, 스티카등을 이용하여 천하가 예수님의 소문으로 격차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세상의 관심과 화제의 쏠점이 되게 하는 전략이다.

또 전원 참여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7백만 신자가 2,900만 불신자를 향해 벌이는 전도 캠페인에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참가해야 할 동기부여의 방법을 교회마다 행동요원들이 예배 후 참석자에게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나도 한 마디의 기도
나도 한 사람의 기도
나도 한 몫의 헌금
나도 한 개의 팻지
나도 한 번의 헌혈
나도 한 점의 구호품"

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또 '80복음화 전략'은 불청전도의 분위기에서 요청전도예로의 분위기 조성이다.

전도자와 피전도자 사이의 심리적 저항감을 해소하고 접촉하기 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스컴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캠페인을 벌이는데 전반기에는 "나는 찾았네"

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면 마치 사도행전의 사건처럼 다 놀라 서로 말하기를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서로 물어보고 호기심이 생겨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불청전도의 분위기에서 무엇인가 알고 싶어

나는 찾았네

물어볼 마음이 생기는 요청전도의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후반기에

"당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새생명 예수를"

이라는 캠페인을 벌인다.

세계 60여개국의 통계에 의하면 전반 캠페인 때 시민의 80% 이상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어 접촉하기가 쉽고 부드러워진다는 사실과 후반 캠페인 후에는 80%이상이 몽롱하나마 잠에서 깨어나듯 하나님 의식이 생긴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제 민족 복음화를 향한 마지막 도강, 이 강만 건너면 한국이 복음화되고 세계선교를 담당하는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는 이 비전,

"기독교 민족 만삭 8개월,

한 번만 힘쓰면 사상 전례없는 기독교 민족이 태어나는데"

그 산파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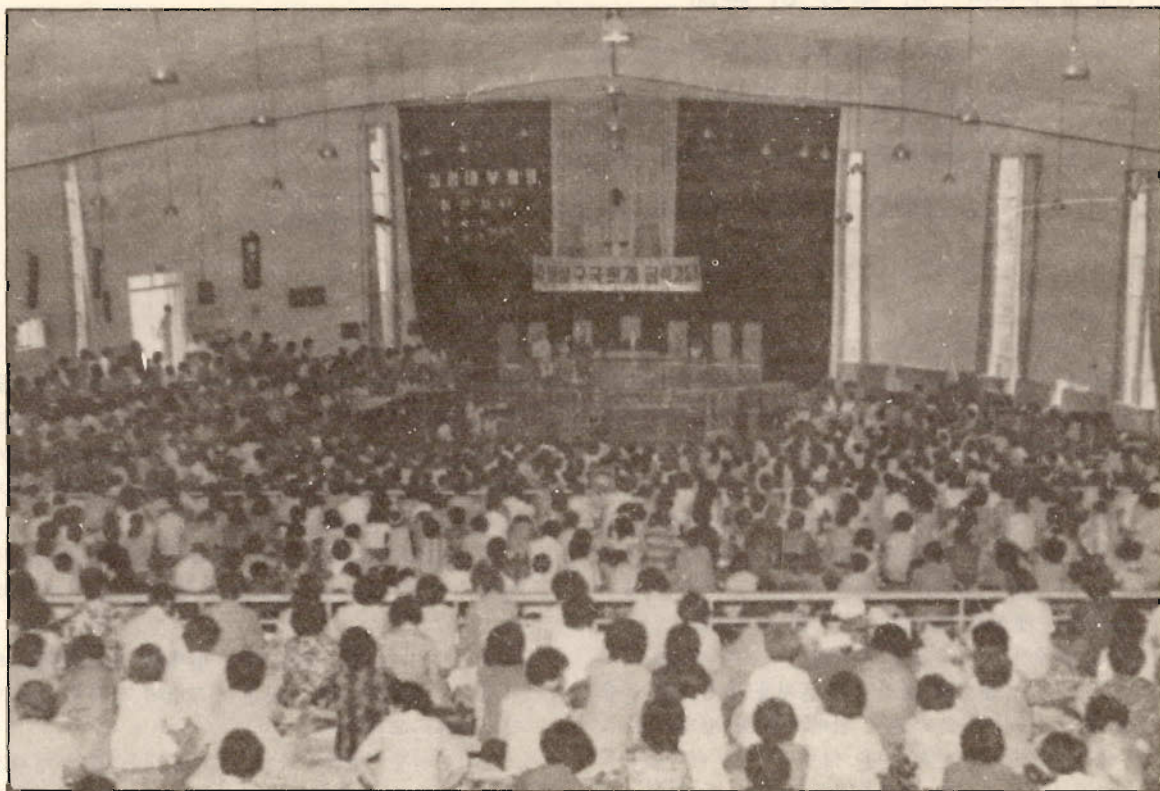
이 비전을 모든 신자들에게 심어주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대회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중앙조직을 비롯하여 시, 군단위 및 채교회별로 조직하고, 전국 교회에서 이 운동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

교회별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전국교회에 급식 기도를 권장한다.

전교인 재자화를 위한 전도훈련을 실시하는데 1 단계는 각교회 교육책임자를 훈련하고, 2 단계는 각교회 교육책임자가 그 교회 소목자(순장)를 훈련시키며, 3 단계는 소목자가 7,8명씩 전교인을 훈련시킨다.



〈'80세계복음화 대성회의 일환으로 열린 6·25비상 구국회개금식기도회 -한얼산기도원에서〉

모든 신자가 태신자 갖기 운동을 벌이며, 시청각 훈련 교재를 보급하고, 교회를 복음센터화하여 우리 밖의 양에 대해서도 사랑의 복회대상으로 삼는다.

전교인이 축호전도에 참여하며, 교인배가를 위한 "나도 한사람" 운동을 전개하고 국제규모의 부인 조찬기도회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구제의 날을 정하여 지역이나 교회별로 구제센터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님을 소개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한다. 6·25때 우리는 세계로 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민족이 신앙적, 경제적 면에서 성장하였으니 우리도 세계의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마땅하다.

또 성도 헌혈의 날을 정하여 학생, 청년 행동요원을 중심으로 많은 신자들이 헌혈운동에 참가하게 하여 우리 국민이 충분히 쓰고도 전세계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우리 민족의 사랑의 수출, 생명의 수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성구 편지 보내는 날을 정하여 각자가 가진 태신자에게 일제히 편지를 보내게 한다. 따라서 한국의 전가정마다 성경 한 권씩을 받도록 하는데 그것은 그 지역 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으로 하게 한다.

북한 선교의 날을 지정하고 면단위 양촌운동을 전개하며, 가정 성경연구의 극대화와 직장성경 교실의 극대화, 어머니 성경교실의 극대화, 라디오 방송을 통한 평신도 성경연구, 신학공개 강연회 개최등을 벌인다.

□ 세계 106개국 교회지도자 참석

본 대회에 대한 세계교회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이다.

준비위원회에 의하면 이미 106개국으로 부터 교회지도자를 비롯하여 실업인, 문예인, 학생지도자들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단체, 혹은 개인적으로 동 대회에 참석하고, 일본 보수 신앙계의 시마무라 목사는 일본교회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2,300명이, 자유

□□□..... 먼 훗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
우리의 후손들이
그대는 그 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면
그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중국서 1천명, 미국에서 1,600명, 대만에서 5백명, 싱가포르에서 1,000명, 홍콩에서 1,000명, 말레이시아 중국계 30명, 아프리카에서 50명등 남미 32개국에서 대거 동 대회에 참석한다.

특히 동 대회는 해외교포 2세들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하여 로마에 복음을 전하므로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외국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해외교포 2세들을 이번 대회에 참가시켜 훈련을 쌓게 하고 복음의 불을 붙여 세계 선교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중공이 서서히 닫힌 문을 열면서 특히 어학교사를 필요로 하는 차체에 평화봉사단(아가페 봉사단) 형식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 교포 2세들 약 2천명을 동 대회에 유치할 계획이다.

□ 8월, 여의도서 만나자

먼 훗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 우리의 후손들이 그대는 그 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면 그대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완전 복음화 전도전략으로 준비에 한창 바쁜 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준비위원회는 각종 세미나를 위한 국외강사 70여명을 특별 초청하고 계층별로 성경공부를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8월12일 밤부터의 전도집회는 성령이 연쇄 폭발하는 메시지가 풍성하게 전해질 것이며, 전국 성도들이 인도해 온 태신자들에게 결신을 위한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밤을 지새우며, 조국의 안보와 번영, 민족의 부흥과 발전,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통회자복의 회개운동이 8월의 무더위와 함께 뜨거운 성령의 바람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동대회 대회장 김창인 목사는「인생 나그네 길을 끝까지 성공으로 잘 사람은 힘있는 사람」이라고 전제

하고「인간의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결심의 허리띠 묶고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욕심을 떠나, 개인주의 떠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만 하면 84년 한국 선교 백주년에는 2천만 신자 주신다는 걸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회장은「이제 잠 잘 때가 아니고 80년대는 일어나서 떨 때이다. 일초도 머무르지 말고 떨 때이다.

영혼이 사는 것, 민족 자손 만대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준비위원장 김준곤목사는 “80년대는 세계 캠퍼스에 예수 열풍이 불게 하자”는 메시지에서「이 민족 집단에 있어서 민주주의 모범생이어야 할 기독교의 근 1백 년사를 반성해 볼 때 화해와 타협과 일치와 합리가 통하기 보다 싸움과 분열과 비리와 폭력사태로 불신사회의 빈축과 규탄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그렇다고 학생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고발의 돌을 들고 간음한 여인을 치는 바리새의 심판자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80년대는 예수의 바람이 불게 하자, 예수의 소리가 천둥같이 들리게 하자, 예수의 홍수가 터지게 하고, 기도의 불씨들을 모아 성령의 용광로를 만들자

사도행전적 원색의 전도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말씀운동, 사랑과 일치운동을 일으켜 허무귀신, 공산귀신을 몰아내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 : 8)

나는 찾았네



김희보 목사

김희보목사님은 우리에게는 무척 낮은 분이시다. 지도자양성부가 생기면서 부터 또 성경학원 설립에 부터 신·구약개론 및 성경강해를 해 오서 성경학원 발전에 큰 힘이 되셨다.

김목사님은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총회 신학대학 학장으로 수고해 오셨고 1960년부터 12년간은 성도교회에서 시무하셨다.

1953년에 총회신학교 본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링컨대학, 미시간의 칼빈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으시고 1972년에는 미국 임마누엘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으셨다.

사모 정석순여사와 오남삼녀를 두고 있다. 장녀 영숙(총신대강사), 차녀 혜숙(도미), 3녀 정숙(연세대학원재학)씨는 출가, 현재 총신대학에 재학중인 장남과 중학 1학년에 재학중인 차남과 함께 상동에서 살고 있다. 만62세, 평북 철산출신이다.

윤영탁 목사



우리 교회 초창기때 부터 주교교사로, 성가대원등으로 이모양 저모양으로 봉사하며 자라 오셨다. 처음으로 대학생회를 조직,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다.

1957년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 1964년에 미국 카바넷신학교를 졸업. 1964년부터 1967년까지 미국 드라시대학에서 구약부문연구, 1967, 8년에는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에 가시어 연구하시기도 했다. 1969년-1971년 미국 드라시대학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위한 연구를 계속, 공부를 마치고 1974년 귀국하여 우리교회의 교육담당 부목사로 잠시 계시다가 1975년부터 총회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다. 현재도 총회신학대학 구약학 부교수로 계시며 학생처장의 일을 맡아 보고 계신다.

사모 이귀자여사(총신대 종교음악과장)와 딸 에스더 그리고 어머니 장신덕권사님과 함께 반포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만 46세, 만주에서 출생하셨다.



신성종 목사

이종윤목사와 함께 우리 교회 학생회 시절 부터 자라났다.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연세대에 다니시면서 고등부교사로, 또한 총회신학대학 신학연구원을 다니시면서 고등부지도교역자로 수고 하여 오셨다.

1971년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철학박사학위를 받으셨다. 위를 취득코 즉시 귀국,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 담당 부목사로 일하셨다. 또한 고려신학대학교수(신학부장 및 학감) 및 아세아 연합신학원 교수로 계셨다.

1978년 3월 부터 현재까지 명지대학교 부교수 겸 교목실장으로 계신다. 우리 교회 성경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해 오셨고 금년 여름에는 엠마오성경 연구를 강의하셨다. 사모 이종숙여사와 두아들 인성, 인수, 장녀 에스더가 있다. 만43세, 충북출신, 갈현동에 사신다.

이종윤 목사



이종윤목사님은 우리교회의 초창기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교회에서 자랐다. 학생회 당시에는 학생회부회장으로(그당시 사람으로 한경일장로님, 신성종목사님등이 있다)

그후에는 고등부 지도교역자로 수고해 오셨다. 연세대학과 총신대학연구원을 마치신 후 도미, 1971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1975년에는 영국 스코틀랜드성 앤드루스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그후 독일의 튜빙겐대학에서 연구하신 후 1976년 미국에서 미국개혁장로교회목사안수를 받으시고 필라델피아의 제일장로교회를 설립, 시무하셨다.

1978년에는 미국의 풀러신학교 교수로, 1979년 이후로는 아세아연합신학원교수와 공산권선교연구소장으로 계신다.

사모 홍순복여사와 슬하에 미리(13), 미영(9), 미경(7)의 3녀가 있다. 동빙고동의 라이온즈 아파트에 사신다. 만40세.

지난 주 몹시 여윈 노파가 가슴에 묵주를 움켜잡고 뒤뚱거리는 전족의 걸음을 하여 북경사원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600여명의 중공 천주교도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를 받고 고해성사를 하였다. 전녀련의 동단가(街) 개신교회에서는 목사가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하였다. “지난 날 우리의 도움이셨던 하나님이지여”라는 마지막 구절을 읽은 후 그는 300명의 신도들에게 “지금은 즐거운 때입니다 곧 새 성경이 인쇄되어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중공의 기독교 □

중공에 다시 탄생된 기독교

지금 중공의 크리스찬들은 날뛰는 홍위병들이 교회를 창고로 만들고 성직자들을 감옥으로 혹은 직업 전선으로 추방시켰던 1966년 이래의 카타콤 생활에서 조심스레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년 전부터 화국봉 정부가 무신론 국가인 중공내의 크리스찬들과 다른 종교단체들에게 공공연하게 신앙행위를 하도록—그것도 종종 국가의 비용으로—허용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매월 50불을—일반 도시 거주자의 봉급보다 많다—성직자들에게 지급하는데, 후지앙의 해안지방에서는 14년 전에 산업용으로 몰수된 개신교회에 9천불을 “미납사용료”조로 지급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묵인하는데는 정치적 목적과 몇가가 있다. 인구 10억의 나라에 크리스찬이 200만 가량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의 자유는 중공의 야심적인 “현대화” 계획에 대한 교회의 지원에 보답하려는 작은 양보인 것이다. 더구나 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중국의 형제들을 방문토록 하고 또 중공의 1천만 모슬렘의 대표들을 메카에 성지순례하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정부는 서방 및 회교국들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한 자유에 대한 보답으로 중공의 각종 신도들은 중공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그들의 관습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외국 교회와의 모든 교회적 유대를 끊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조치의 교인이 7천명~150만으로 추산되는 로마 카톨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57년에 중공 카톨릭교회는 애국가톨릭교회(PCA)로 국영화되었고, 그때부터 20명 이상의 주교들이 교황의 승인 없이 성직에 임명되었다. 바티칸에서는 PCA를 분파로 간주하지만 유럽의 추기경 2명이 지

난 봄 중공을 비공식 방문하여 중국인 주교 몇 명과 라틴어로 논의하였다. 그후 비엔나의 프란츠 캐니히 대주교는 PCA를 “세계 유일의 국립 카톨릭교회”라고 인정하였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전통 고수적인 것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제들이 미사때 사용하는 미사전서는 50년 된 낡은 책뿐이고 전국에 걸쳐 기도서는 라틴어로 된 것이다. 아난게 아니라 최

근 중공을 방문한 미국인 사제가 후조우에서 중국어로 미사를 드렸는데 이튿날엔 그가 집례한 미사에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달 북경에서 190 명이 넘는 중공의 주교와 사제들이 18년만에 처음으로 교회회의를 하였을 때 그들의 행진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길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바라는 통에 방해를 받았다. “국외자가 이곳에서 종교적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고 49세 된 북경의 미가엘 후 티산 주교는 지난 주 뉴스 위크지의 멜린다 류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중공에서 종교—어떤 종교이든—를 보급할 책임은 중공의 것이어야만 한다.” PCA의 신임 고위 성직자는 분명히 바티칸을 지칭하여 “우리는 다른 교회의 지배를 받는 입장을 받아 들일 수 없고 또 받아 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독립교회다”라고 역설하였다.

중공의 개신교를 국영화—동질화—하려는 정책으로서 정부는 3자운동(三自運動: 자력운영, 자력전파, 자력유지)을 중공의 여러 교파에 대한 포괄적 교회로서 부활시켜 놓았다. 개신교도들은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공부하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실수가 얼마나 되는지 믿을만한 게 없다. 지난해 약 700명의 개신교도들이 북경의 유일한 개신교회(제2의 교회가 곧 문을 열 계획임)의 예배에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신자가 많긴 한데 마음속으로 예배 드리고 아직은 나오기를 망설인다”고 옌 지펑 목사는 말한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국어판 성경 13만부를 찍을 인쇄 용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 개신교 회중들이 사용할 성경과 기타 예배용품들을 마련하는데 그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지난달 후조우의 한 교회에서 나온 주일 헌

물이 현지 통화로 100불 상당액과 옷감 2피트 구입권 및 곡식 55파운드가 나왔다.

아편과 갈아

중공정부는 또한 종교를 합법적인 학문연구 분야로 승인하고 있다. 금년 들어 난징대학교는 전의 개신교 신학교를 통합하고 그 교장을 부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중공은 새로된 「사회과학아카데미」와 「세계종교연구소」를 신설했다. 지난 해 8월 초빙강사로 온 서독의 자유주의 카톨릭 신학자 한스 링은 동 연구소에 대하여 종교 뿐 아니라 혁명도 “인민의 아편”이 될 수 있다고 거리낌 없이 경고하였다.

분명히 중공의 새삼스러운 종교의 자유는 엄격한 제한이 뒤따른다. 1978년의 헌법 조항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무신론의 전파를—당국에서 신앙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어느 때고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몽둥이—허용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적 억압이 도시에서만큼 철저하지 않은 시골의 젊은이들 가운데 기독교로 대량 개종하는 보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1명의 카톨릭 주교와 36명의 예수회 수도사들이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바로 지난 주 광둥의 전

카톨릭 주교 등예밍이 22년 만에 석방되었다. 광둥 공안국에 의하면 그 주교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가 PCA를 반대하고 다른 “반혁명” 행위를 한 데 대해 “통과 될 수 있는” 회개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통제는 계속되고

정말 중공의 교회 가운데서 의미심장한 요소는 가정에서, 감옥과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너털너털한 성경과 밀수입한 성찬용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무수한 “무언의” 크리스찬들이다.

이들은 국가의 종교 통제에 계속 저항하는데, 10억의 중공인 가운데 소수에 불과한 지하 신자들로서 그들에게 종교적 자유가 올 가망은 없다. 중공이 국외자들에게 조심스레 문을 열고 보니 로마와 제네바 및 다른 기독교 중심지의 교회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아직도 서구의 선교사들이 전해 준 신앙을 위해 고통 받는 지하의 크리스찬들을 포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러나 통제 받는 중공의 교회들을 다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

(1980년 6월 23일자 뉴스위크지에서.)

번역 / 오태용집사)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충현의 모든 성도는

어린이로 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으며 똑같이 힘써야 합니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가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교회 전체나 각 지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25년전 오늘의 충현교회당을 지을때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마을과 힘을
합하였다.)

* 기독교 윤리 *

오늘에 살고 있는 인류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나 인구 문제만큼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거리에 나가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각금 부지런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서울에만도 800만 가량의 인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머지 않아 1천만을 육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문제, 식량문제, 자원문제, 공해문제는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겠다. 이렇게 인구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추세라 하겠다.

여기서 전 세계 인류가 팽창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에리히(Paul Ehrlich)박사에 의하면 기원전 6천년경에 세계 인구는 약 500만 정도 였다고 한다. 그리고 500만의 절반인 250만의 인구였을

1985년에는 50억, 2000년대에는 70억이 되고 머지 않아 100억의 인구, 아니 그 이상 증가되어 지구는 포화 상태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 인구 조사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에 의하면 소위 개발된 국가들보다는 개발 도상 국가들이 훨씬 더 증가율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왜 최근에 와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필자가 작년 충현지에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월간 충현지 1979년 5월호 20, 21페이지 참조)

다만 여기서는 이러한 인구 증가가 인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간단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자원의 한계를 드러나게 한다.

* 연재순서 *

- | | |
|-------------------|---------------|
| 1.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 2) 하나님 나라 형성 |
| 2.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 사상 | 8. 생활속의 윤리 |
| 3. 신약의 윤리관 | 1) 가정 |
| 1) 신약의 도덕적 이상 | 2) 결혼 |
| 2) 예수님의 교훈(윤리관) | 3) 이혼 |
| 4. 인간과 윤리 | 4) 성(性) |
| 5. 초대교회의 윤리적 배경 | 5) 경제 |
| 6. 윤리적 척도인 양심 | 9. 사회속에 윤리 |
| 7. 기독교의 도덕적 이상 | 1) 인구문제 |
| 1) 사랑의 실천 | 2) 국제질서·전쟁·평화 |

인구 문제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때는 그보다 100만년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인구 증가 추세가 상당히 둔화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서기 1650년에는 세계 인구가 5억 정도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나타난 것을 계산한 결과 이 당시에는 약 1000년만에 세계 인구는 배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억의 배인 10억이 된 것은 200년 후인 1850년 이었고, 그후 1930년에 10억의 인구가 20억의 인구로 증가했으므로 80년 후에 세계 인구는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나간다면 35년 후인 1965년에 40억을 돌파할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10년 후인 1975년에 40억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약간 주춤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몇 차례의 전쟁과 재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식으로 계속 증가되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인구 증가는 자원의 소모를 급증시켜 주므로 자원의 한계를 빨리 드러나게 한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된다면 몇몇 종류의 광물질은 2050년에는 바닥이 나리라는 소식이다. 석탄, 크로움, 철, 코발트, 니켈을 제외하면 거의 50년 이내에 다 소모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지 않는 한 인류는 자원난에 허덕여야 할 수 밖에 없는 때가 도달한 것이다.

2. 식량의 위기를 면할 수가 없다

지금도 세계인류 가운데 개발 도상국 인구의 20%가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으며, 60%정도가 영양실조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특히 세계 9억 5천만의 어린이들 중에 6억이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며 현실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식량증산이 필요하다. 식량을 증산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5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① 경지면적 확장 ② 단위 면적당 생산의 증가 ③ 감모의 방지 ④ 새로운 시도 ⑤ 경제 정책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구 증가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3. 환경 오염이다

환경 오염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 인구가 증가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이 증가 되었고 그 결과 환경 오염이 인간을 괴롭히는 괴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각종 화학 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각종 쓰레기 증가로 인한 공장 오염, 각종 소음으로 인한 음향공해는 인구 증가로 인한 부산물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정신과 건강을 잠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원인 모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었고 인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 오염은 인간 스스로 쌓아 온 대적이다.

4. 생존경쟁이다

현대는 경쟁의 시대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이다. 경쟁에서 지면 죽는다.

점점 일자리는 적어지고 게다가 경제 공황으로 실업자는 늘어나 살기가 점점 더 힘들고 지고 있다.

특히 물가는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수입은 뒷걸음질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제 사람들의 직업은 소명 의식에 의하여 선택되고 일하기 보다는 돈을 벌어 생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신이 살기 위하여는 남을 죽이는 일쯤은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는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생존 경쟁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 질 것이 틀림없다.

5. 경제 문제이다

하나님께서서는 6일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이와같이 생산을 효과있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절대 필요하다.

적당한 휴식은 생산을 증가시켜 준다.

그런데도 될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은 경제 문제에서 온 것이다. 즉 인구 증가는 인간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경제 문제는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연쇄 반응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면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 문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①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교육비, 교통비, 주택비, 보건비, 식량구입, 그 밖에 많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② 국가의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 국가의 소모가 증가하면 당연히 나라의 경제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가의 경제 성장이 저해될 때 국민들의 생활이 가난해 지는 것은 물론,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는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③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인구가 많은 쪽은 적은 곳보다 더 가난하게 산다. 따라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등 교육을 받는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부유층에 사는 사람들은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훨씬 더 많게 된다. 이렇게 되어 결국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정치적 세력까지 가지게 되어 더욱 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인구 증가를 최대한으로 억제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억제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기독교 윤리는 당면한 제반 문제를 성경적 입장에 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어떤 학자는 새로운 금욕주의의 입장에서 산아 제한을 주장하며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책임적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구 증가의 극심한 상황속에서 가족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의 입장에서 기독교 윤리는 지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상과 같은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를 긍정할 때 역시 많은 윤리적인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즉 한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안락사(euthanasia)의 문제를 비롯해서 인공유산(abortion),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기관이식(organ transplants), 인간실험(human experimentation) 등 이와같은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윤리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로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안락사와 인공유산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적인 문제다.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실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벌써 가족계획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인구 문제는 오늘의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계 인류가 안고 있는 이러한 고민들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찾았군요

이 형 수

어린이와 할머니의 가슴에도, 학생들의 가방에도, 육교에도, 벽보판에도,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도, 온 서울 시내가 「나는 찾았네」로 물결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생명을 찾아 이제 그 분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심을 목적어를 생략한 한 마디 말로 표현하여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은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그들도 「나는 찾았네」라고 고백하며 외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책임을 모두가 안고 있다. 또한 차제에 「나는 찾았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흔히들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왜 그렇지?」라는 생각과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숙정(肅定)이라는 별로 귀에 익지 않은 말을 매일 아침, 저녁, 신문지상에서 대하면서 더욱 생각하게 된다. 크리스찬들의 비리(非理)가 우리에게 들려 질 때마다 생각해 본다. 「신앙은 좋은데…」하며 안타까운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해 본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크리스찬의 집단에서 교제를 나누며, 개인적으로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만이 신앙이란 생각을 벗어 버릴 때도 된 것 같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생명을 찾는 우리들에게는 새생명을 찾은 감사와 감격의 바탕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부조리한 삶의 현장을 직시하고 그속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냉수를 나타내게 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별 때에 우리는 한 조각의 생각과 한 마디의 말과 한 순간의 행동을 늘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전 생활 영역이 불신자들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가슴에 아무것도 달려 있지 않더라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찾았군요」라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새 480 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 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요즘 같이 불안하고 괴로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찾아 볼 수 있을까?

여기 이 찬송을 조용히 불러 보시면 참 평안을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이 찬송을 부르므로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자리잡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오직 “주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닌가? (요 14:27참조)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최악이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주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 찬송을 기쁘게 부를 수 있나요? 아직 내 맘속에 평안이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2절 가사를 한번 읽어 보세요.

“내 맘에 쫓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함 있도다”

내 마음속에서 부터 솟아 오르는 영생수가 없기 때문이다. 샘솟듯 솟아 오르는 생수만 있다면 목마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요 4:14참조)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무엇일까? 성령충만이다.

목마름 다시 없는 생수같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2절을 다시 한번 불러 보라.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며 영원한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이 찬송은 작시자와 작곡자의 이름만 밝혀졌을 뿐 그 이상의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름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 형제가 아니면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쯁도 이 찬송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6월중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주석류

1) 칼빈주석: 존, 칼빈저. 성서교재간행사발행. 1980, 530P.

2. 사전류

1) 기독교성서대사전: 성서교재간행사발행, 1980, 26cm

3. 성가집

1) 할렐루야복음송: 성북교회대학부발행, 1980, 193P, 20cm

4. 기타

1) 합동연감: 합동통신사발행. 1978. 630P 26cm

5. 양서

1) The Ante-Nirene Fathers.; WM. B

① Eerdmans Publishing Company, Michigan, 1978
Apostolic Fathers Justin Martyr Irenaeus.

② Hermas, Tatian Athenagoras, Theophilus
Clement of Alexandria.

③ Tertullian Part I - III

④ Tertullian(IV) Minucius Felix Commodanus
Origen.

⑤ Hippolytus, Cyprian, Caius, Novatian, Appendix.

⑥ Gregory Thaumaturgas Dionysius The Great
Julius Africanus Methodius, Ambrosius Minorwriters.

⑦ Lactantius Minor Writers Apostolic Teaching
and Constitutions Ancient Homily and Liturgies.

⑧ Syriac Documents The Clementina Apocryphal
Gospels Acts and Revelation Patriarchs, Excerpts
and Epistles.

⑨ Bibliography General Index.

⑩ Added Volume Peter, Tatian Commentaries of
Origen.

2) The Nirene and Post-Nirene Fathers. First
Series 14V.

엘머타운즈저, 조해수역

미국의 10대교회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9. 255 P 1200 원

책을 읽고 어느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며 소개한다거나 읽은 사람의 주관이 지나치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게 하지만 본 저자는 이 책을 쓰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제시에 머무름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선택과 결정을 오히려 강요하는 것 처럼 보인다. 학자로서 또한 실제적인 자료에 접한 실무자적 위치에서 미국의 10대 교회의 성장 요인을 제시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심이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10대 교회가 다 도시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며 곧 도시 선교에서의 승리가 교회 성장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공한 교회의 교회 생활 내용이 무엇인가도 관심사였고, 무엇보다 귀한 것은 그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를 통해 이루어진 성장이라는 것이다. 필자 자신이 말한 것처럼 학설과 이론은 풍부히 제시되지만 구체적으로 물적 증거를 가지고 뒷받침 받은 것은 희귀하며 이와같은 자료로서 뒷받침하는 작업이 목회 일선에 종사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부여된 임무요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날 본 교단과 한국 교회에 선도자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여럿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읽는 사람마다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책이 함께 검토하고 실천에 당장에 옮겨 볼 만한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리라 믿는다. 도시 선교의 과제와 교회 생활의 혁신을 통한 교회 성장과 발전에 구체적인 도시 선교의 방법론의 문제와 함께 매우 귀한 책으로 생각되어 머릿속에 남겨 둘 것이 아니라 실제에 적용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책을 거론하여 소개해 본다. 도시 선교와 교회 생활의 제문제 및 그 신학적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간에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유 국 남 전도사 <선교부 부지도>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얻음을 확신

조 순 자

(성경학원 보통반)

첫 시간이 생각난다. 첫 시간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가치론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의 나의 솔직한 심정은 겨우 6장 밖에 안되는 이 말씀이 무슨 그러한 놀라운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다. 그러나 성경학원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내 심령에 참 깨달음과 산 소망을 주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 일과로 우선 육신이 피곤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성경학원에 출석해야 했고, 금요일에는 선교주일학교, 토요일은 청년부 집회, 또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일로 내 개인적인 특별한 시간이나 약속을 할 여유가 없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자신이 없어지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에 감사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또한 시간 시간마다 너무나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하셨거니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나는 하루 하루 갈라디아서를 배워가면서 목사님께서 첫날 가치론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그 이상의 가치들이 담겨져 있음을 실지 눈으로 보고 만지며 깨달을 수 있었다. 성경에 대해 백지 상태와도 같았던 나의 매마른 심령에 말씀의 단비를 듬뿍 맞으며 매일 매일 차 안에서나 점심시간을 할애하여 묵상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문득 구역 집사님께서 우리집에 놀러 오셔서 나에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보다도 더 달다고 하셨다. 꼭 그 말이 거짓말 같았다. 나는 그 당시 아무리 읽고 노력해봐도 재미는 커녕 출음만 왔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꿀송이 보다도 더 달고 맛있었다. 그리고 특히 깨달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제껏 구원에 대한 많은 의심이 이 순간부터 변하여 새로운 힘이 솟았다.

나는 확신한다. 행위가 아닌 믿음=구원을 믿고 감사 드린다. 또 구원의 대상이 다름 아닌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악한 세대 속에 죄인된 나,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나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 즉 자기 인격, 전생애를 다름 아닌 나 때문에 버리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전에는 이것들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기에 다시 깨달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없이 나시고 또 죄없이 사시고 죄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심령 속에 항상 나를 지켜 주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또 감사했던 것은 다른 복음을 좇지 말라는 바울 선생님의 권고가 나의 믿음을 더욱 더 견고케 해주었다. 나는 공부하면서 정말 반석 위에 굳게 서려면 예수님의 말씀위에 바로 서야겠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척스럽게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복음의 유일성과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절대주권을 깊이 깊이 확신한다.

그리고 제일 마음 속에 깊이 와 닿은 것은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처신이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언제 어디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만을 좋게 해드려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행하리라 기도드린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또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찾았다. 그 중에 하나는 이단 마귀들의 달콤한 거짓에 현혹되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번이라도 울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리라. 나는 이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딸로서 담대히 서서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리라. 이 밤 주님 앞에 기도드린다.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편 68: 1 - 6

공의로우신 심판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 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잠잠히 참고 계신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동안은 잠잠히 계시지만 때가 오면 공의의 막대기를 드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때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가 있었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행동을 개시하게 되면 원수의 집단은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무리는 하나님앞에 설 수가 없어서 도망할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의인은 하나님앞에서 기뻐 뛰놀게 되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악인에게는 멸망이요 의인들에게는 감사와 승리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공의로우신 대심판자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때가 잘 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습과 인정과 험기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오기 전에 준비를 갖추어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여 그 앞에서 뛰놀게 됩니다.

시편 68: 7 - 14

조상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여 흠직한 바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건

고케 하시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며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 주시고 광야로 행진케 하실 때에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십니다.

땅이 진동하니 애굽 나라가 흔들리고 바로왕의 세력이 떨어집니다. 10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육의 양식을 준비하여 매일 만나를 내려 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준비하여 단비를 주시며 전쟁에 승리를 준비하여 주셔서 승리를 주시니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많은 여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내려 주십니다.

시편 68: 15 - 18

택함 받은 자의 복

『너희 높은 산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가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인간중에 다른 큰 자만 못한 적도 많지만 하나님의 택함만 받으면 해탈자가 없고 반드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집에서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성공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나라, 백성, 개인을 높은 곳에 올려 두시고 악한 자가 손 못대도록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는 마침내 하나님앞에 항복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원고는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시편 강해를 편집실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6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지구

보문구역	조명현	성북구안암동3가32, 13/3
삼선구역	배은주	성북구삼선동1가274-112, 12/4
동소문구역	이영균	성북구동소문동6가 152
광희①구역	임재선	중구을지로6가
정릉구역	안인숙	성북구정릉1동185-86, 28/4
상계구역	홍문표	도봉구상계동207-2, 2/4
삼양①구역	한용욱	도봉구미아2동23/1
동소문구역	양철석	도봉구돈암동2가 538-4, 19/4
삼양③구역	노명선	도봉구미아4동138-10
수유리구역	강연자	도봉구수유3동수유중앙시장중앙당 시계점30-25

● 2지구

태릉구역	이정순	경기도남양주군미금읍호평리205
신당③구역	손영해	중구신당1동236-123, 15/1
쌍림④구역	김순자	중구쌍림동151-86
신당①구역	우원순	중구신당2동336-26, 6/3
장충①구역	박선옥	중구장충동1가56-38, 3/2
장충①구역	김지영	중구장충동1가56-39, 3/2
서강구역	이정숙	마포구하수동83-2
서강구역	이익현	마포구창전동347-5, 17/3
길동구역	김성준	강동구명일APT. 4동301호
쌍림③구역	정연희	중구장충동1가28-1
홍인②구역	방삼식	중구화학동2311
명우구역	김숙자	동대문구명우2동457-10, 10/1
석관구역	김원삼	성북구석관2동32-119, 25/11
천호구역	김현자	강남구성내동80-12, 24/2
중화①구역	한경옥	동대문구목동235-151, 36/1
태릉구역	왕정희	경기도남양주군미금읍금곡리419

● 3지구

장충③구역	장정자	중구장충동2가199-55
장충③구역	박애실	중구장충동2가191-56, 9/2
장충②구역	유송은	중구장충동2가193-140, 10/3
지암①구역	전양순	성동구차양동화양추가지구56구회

목수②구역	김보혜	성동구금호3가984-2
시영①구역	송중호	동대문구중화동154-46, 7/5
잠실④구역	전민성	강동구잠실3주공APT, 454-401

● 4지구

대방구역	임인숙	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229-4
봉천②구역	김상열	관악구봉천본동158번지, 13/3
서강구역	손경순	마포구신수동412
방배①구역	지아연	관악구방배2동298번지 4동 205호 12/4
인현②구역	손영현	중구충무로4가137
염리구역	손계순	마포구염리동36번지13/8
화원구역	박영철	중구충무로4가51-4
반포②구역	신춘덕	강남구반포동주공아파트202-305
회현구역	마재하	중구남산동2가43-6, 5/6
신길구역	김태환	영등포구신길동1가110-29, 9/7
용문구역	강현자	용산구도원동8-14, 8/2
신림②구역	홍영숙	관악구신림동5가1347-13, 11/3
상도②구역	임승봉	동작구상도1동627, 3/5
시흥구역	송영준	경기도 시흥군소하읍하안1리22-22
용산구역	오선자	용산구한강로2가296-2
필동③구역	공상애	중구필동3가72번지
용문구역	이명숙	용산구신창동48번지, 9/3
인현②구역	임병찬	중구인현동2가192-30.20세 기양북점

● 5지구

홍은②구역	송환철	서대문구홍은1동57번지
홍은②구역	이중현	서대문구홍은2동8-928
응암②구역	김차숙	서대문구북가좌동3-213, 3/3
효자구역	박부미	서대문구부암동241-2
율지②구역	양남순	중구죽곡동273-15, 16/5
율지①구역	조윤자	중구산림4가74-402
갈현구역	김진숙	서대문구갈현동389-4, 장미APT. 101호
남가좌구역	김성남	서대문구남가좌동342-18
명륜구역	오준근	종로구명륜동2가56-9
명륜구역	김애경	종로구명륜동3가2-20, 4/5
구파발구역	신춘희	경기도고양군지도면토당리362-35
공향구역	이요섭	강서구방화1동609번지

새로 나오신 교우는 장년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매주일 오전 11시50분에 동관 3층 장년새신자부실에서 모입니다.

* 축하합니다 (6월 중 결혼)

- 송원열군(전성조권사 아들) 3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장철규군(장병유집사 아들) 5일 오후 1시 영등포중앙예식장에서
- 김재철군(김익환씨 아들) 5일 오후 2시 신문회관에서
- 홍희순양(영아부교사) 6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 이동섭군(이기춘씨 이순근권사 아들) 6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최정길군(청년부회원) 7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최현숙양(정채금집사 딸) 9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엄규호군(김신덕권사 3남) 9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박병승군(제 2 성가대원)과 한경애 양(제 2 성가대원) 11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이동우군(김연일권사 손자 이진수집사 아들) 14일 오후 2시 이대부국에서
- 석영식군(김순연씨 아들) 20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김철하군(김진준씨 전철금집사 아들) 21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김연옥양(청담 ①구역) 21일 오후 3시 30분 이대다락방 전도회협회 3층에서
- 이창업장로와 김용섭양 24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김치수군(청년부회원) 28일 오후 2시 30분 행복예식장에서

* 위로드립니다 (6월 중 별세)

- 김순금씨(삼선구역) 3일 별세 4일 장례
- 오석중 집사(심영순집사 부군) 6일 별세 9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장례예정
- 김덕선씨(윤봉준집사 모친) 24일 별세 26일 장례

◇ 구역담당 변경 ◇

그동안 정상우·김종택목사님과 강봉선전도사님이 사임하시고 새로 세분의 목사님을 모심에 따라 구역담당 교역자가 변경됩니다.

- 1 지구 김재창·김원남목사 겸임
- 2 지구 이승근목사 김순애전도사
- 3 지구 장정일목사
- 4 지구 김창근목사 최순복전도사

□ 권찰수첩 □

구역원의 신앙지도 지침 (2)

2.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두가지 양식을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의 구성요소가 영과 육이며 그 영과 육이 똑같이 양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마 4: 4) 고 하시어 두가지 양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신 것이다.

1) 거들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다. (벧전 1: 33)

2) 믿음, 소망, 사랑이 장성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롬 10: 17)

3) 선한 일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딤후 3: 16-17)

4) 형통과 승리의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다. (시 1: 1~6)

5)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이다. (요 5: 39)

6) 이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까?

- 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 ② 죄를 회개하면서
- ③ 저질 것을 걸립하면서
- ④ 계속성 있게 (일용양식으로)
- ⑤ 규칙적으로 (평일 3장, 주일 5장씩)
- 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 ⑦ 성령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 ⑧ 가정적으로 지키고
- ⑨ 심판의 날이 있을 줄 알고
- ⑩ 약속하신 축복과 상급을 확신하면서
- ⑪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 듣고 지켜야 복이 된다.

제 1: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미국 제 3대 대통령 제퍼슨(Jefferson Thomas)은 “백성들이여 성경을 공부하여 더 좋은 백성이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라”고 하셨음을 명심하라.

김 재 창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선교월보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 서 민수선교사와 가족 3명

명

1. 내방인사

- 1) 조동진목사 - 6월 1일 서부 깔리만탄 선교시찰차
- 2) 김일남목사, 김정용목사 - 6월 10-12일
- 3) 김윤석목사 - 6월 27-29일 안식년 수학후 귀임차

2. 선교관 수리공사

6월 2일 부터 선교관 수리공사를 시작 하였다.
\$10,000에 산으로 예배실 확장과 목욕실 3개, 차고 등을 신축함

3. 오지지역 현황

- ① 뽀데안지역(수꼬요) 장년 4명, 어린이 4명 결신
- ② 바랄란지역(수꼬요) 장년 5명, 어린이 1명 결신
- ③ 수디모로지역(수꼬요) 장년 1명 결신
- ④ 시도와야지역(까디란) 장년 3명 결신
- ⑤ 숨버레조지역(뿌리바디) 어린이 1명 결신

* 기도제목 *

1. 부교역자 선정을 위하여
2. 오지지역지의 계속적인 결실을 위하여

홍콩 - 홍종만 선교사와 가족 6명

제10차 아시아복음선교대회차 홍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7월 15 일시 귀국 하였다. 본 대회는 아시아선교및 주로 중공선교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 대표 및 국내대표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었다.

홍목사님은 19일 다시 임지로 출발하였고 사모님께서 1개월 가량 더 머물 예정이다.

애굽 - 이 준교, 김신숙선교사와 가족 모두 6명

1. 카이로한인교회, 헬리오 폴리스 가정교회 및 동산 살람현장에서 예배 인도중

2. 6월 8일 자이툰 복음주의 교회(부슈라목사사무) 주일예배시 이선교사 설교하고 한인성도들의 특별순서가 있었다.

3. 6월 14일 지원하고 있는 슈빈느 엘콤교회 (앗달라 이스학목사 사무)를 방문하여 교회현황을 살펴보고 농촌교회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4. 6월 22일 헬완 복음주의 교회(다비브목사사무)에 주일저녁 이선교사가 설교하였다.

5. 6월 28일 애굽복음주의 교단 총무 사무엘 하비브목사를 방문 애굽교회 지원금(7월분)을 전달하였다.

* 기도제목 *

1. 지금 기온이 40도를 넘고 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두선교사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2. 애굽선교의 성공을 위하여

서독 - 육호기선교사와 가족 3명

1. 세교회(비스바덴, 뷔츠부룩, 하나우교회)연합 야외예배를 6월 21일 110명이 드렸다.

2. 뷔츠부룩교회에서는 2주일에 걸쳐 대심방을 하였다.

3. 제 4회 평신도수양회를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였다.

* 기도제목 *

1. 지금은 여름이 다가고 우중에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2. 선교사님과 가족의 영육의 강진을 위하여

호주 - 김태현선교사와 가족 4명

1. 성경절수 찾기대회를 6월 22일 주일 예배 후 가졌다. 내용은 빌립보서였으며 교우들에게 성경읽기를 권장하기 위해서였다.

2. 새 출석 가정이 1가정 더 늘었다.

3. 선원선교활동과 대심방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학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4. 새 사업 시작

매주 예배후에 점심을 같이 나누고 어린이에게는 한글공부와 장년들에게는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 기도제목 ***

주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함께 하사 성공하는 선교의 기지가 되도록

아르헨티나-백성룡선교사와 가족 4명

1. 부에노스주에 큰 수해가 있어 구제헌금을 하였다.
2. 6월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주일과 수요일에 계속 특강으로 교육과 훈련에 임하고 있다.
3. 그의 재야중앙교회 계속 목회중

*** 기도제목 ***

1.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을 위하여
2. 목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일본-유병세평신도 선교사와 가족 4명

1. 전도의 열매로 2명의 간호원이 교회에 출석하였다. 할렐루야.
2. 6월15일 유선교사 롬 3:21-26과 갈 2:16로 "믿음에 의한 의(義)"란 제목으로 설교함.
3. 수시로 대합실 및 입원실 전도 계속중
4. 사모님 이윤호권사 일시 귀국중

*** 기도제목 ***

1. 바른 진로생활 가운데서 복음증거하는 유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2. 전도의 열매자들이 계속 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서독-박용삼평신도 선교사와 가족 2명

공한미착

*** 기도제목 ***

박사학위논문 쓰고 있는 박선교사의 건강과 지혜를 갖도록

인도-엘리아 켈간선교사



〈해군의 한 농촌교회에서 설교하는

이준교 해군주재 선교사〉

1. 카시미르 복음주의 협회(K. E. F)에서 계속 복음 활동중임

*** 기도제목 ***

1. 켈간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2. K. E. F의 활동을 위하여
3. 문서선교의 많은 준비를 위하여
4. 새로 열린 '스리나가르의 교회'를 위하여
5. 티벳트언어의 습득을 위하여

본부-해외복음선교회

1. 7월17일~19일 아시아복음 선교대회를 실시 하였음. 강사: 홍종만, 카우프만, 염영택 목사님등 참석: 아시아 각국대표

200여명과 국내대표 150여명 참석.

2. 파라과이 교역자 파송을 위해 출국수속중
3. 칠레에 교역자파송을 위해 수속중
4. 선교주일학교의 제 2회 하기 선교훈련 8월4일~9일까지 강원도훈련원에서 개최예정. 기도요망

교회언론의 지도력 확대

교계신문 전현직 편집국장 간담회

한국교회 언론이 한국교회와 민족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가를 생각하는 기독교신문 전·현직 편집국장들의 첫번째 오찬간담회가 6월30일 서울 종로에 있는 경향식당에서 모였다.

기독교신문을 비롯한 4개교계지 편집국장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기 성찰을 위한 회개운동을 통해 신교 백년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참 모습을 찾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일을 위해 교계언론이 지도적인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특히 한국 기독교가 교회 자체가 안고 있는 허다한 문제점을 과감히 해결하고, 사랑과 화해의 세력으로 구상이 될 때, 비로소 민족 공동체의 지도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이 일을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는 크리스찬의 동질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 끝없는 악순환으로 계속하는 교회분열의 고질적 현상을 타개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민족 앞에 모범으로 보일 때, 민족공동체의 단합과 통일에 기여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앞으로 이 모임은 매월 계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기, 연구, 평가, 검토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말하고 있다.

총회 환원·재합동모색

우리 합동 총회가 교권싸움으로 인해 지난 64회 총회(대구 동부교회·79년 9월)에서 비주류측 일부가 이탈, 상처가 무척 컸었다.

이로 인해 이탈해 나간 비주류측은 또 4분 5열의(방배측·중앙측·연합노회측·계승측·중립노회 총회측)작태를 연출했다.

이에 온 교우들은 이탈, 분열에 염증을 느끼는 한편, 각 지방적으로 평신도에 의한 환원내지는 재합동 논의가 활발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12일 전남 광주에서 전남협의회 산하 7개 노회장 연합석회의에서 교단합동이 논의되었고, 전남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분리되어 있는 형제들이 대의명분있게 환원되기를 희망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선교선 『로고스』호 인천입항

국제 선교선 기적의 배 『로고스』호가 부산항에서 의 선교활동을 마치고 지난 7월 2일 인천항에 입항, 서울,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펴고 있다.

3번째 한국을 방문한 『로고스』호는 27일까지 인천항에 정박하면서 매일 도서전 시회를 열고, 각급 수양회와 훈련프로그램을 갖는다.

17일엔 서울 대학생 선교회 강당에서 「세계선교와 기도 정보대회」를 개최, 19일엔 인천 중앙 교회당에서 「노방전도 훈련세미나」를, 18일~20일까지는 부평역 광장과 동인천역 광장, 제물포 수봉공원에서 「국제음악 전도집회」등을 가졌다.

아세아 복음선교 확대대회

제10차 아세아 복음선교 확대대회(위원장-김창인)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충현교회와 반도유스 호스텔에서 있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를 주제로 한 동 대회는 아세아지역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홍콩 등 9개국대표 4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공선교에 초점을 두었으며, 세미나, 특강,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과 공동선교 협력이 모색되었다.

보청협 이사회 총회

한국보수교단 기독교청장년 협의회 이사회는 지난 6월28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새 이사장에 김차생장로를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김이사장은 취임인사에서 「사이비 종파의 척결에 앞장서는때 주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사장 김차생, 서기 허병욱, 회계 황환만, 감사 안병태, 공창술, 사부국장 손경수

세계 침례교 선교대회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을」을 주제로 한 제14차 세계 침례교 선교대회가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1백여개국에서 침례교인 대표 2만여명이 참석한 동 선교대회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선교정책이 수립되었다.

'80년도 여름행사실시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제6회 농어촌 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선두로 하여 우리 교회의 올 여름행사가 그 막을 올렸다. 7월 3일부터 7일까지의 제9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초청훈련과,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교역자 수련회,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8회 장로수양회를 이미 마쳤다.

또한 주일학교도 7월 16일-19일까지 청년부수양회를 마쳤고 산업전도교육부 제2회 수양회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기도원에서 실시됐다. 금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온 교회가 7, 8월은 여름행사의 열기속에 지내게 되는데 해를 갈수록 모든 내용과 진행, 관리가 체계를 잡혀 가므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한 전 교인이 물심양면으로 한 마음이 되어 참여하고 있어 7, 8월의 교회는 한층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온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1980년도 하기행사 계획표

기 관 명	행 사 명	기 간	장 소	강 사	참 가 인 원		비고
					학생	교사	
당 회	제 8 회 장로수양회	7. 22~24	운수리	김창인	40		*
교 역 자 회	교역자수련회	7. 14~16	소금강	김창인	42		*
성 가 부	제일성가대	7. 29~8. 1	부여유스 호스텔	김하진외 3명	120		
	제이성가대						
	제삼성가대						
	여성성가대						
전도위원회	제 9 회 농어촌전도대파송	8. 18~23	강원도7곳		42		
	농어촌파송전도대훈련	8. 11~12, 16	본교회	김창인의 6명	42		
성 경 학 원	제 6 회 농어촌교역자초청훈련	6. 16~20	기도원	김희보외 10명	136		*
	제 19 회 농어촌평신도초청훈련	7. 3~7	기도원	김재창외 10명	120		*
권 사 회	제 3 회 하기수양회	7. 31~8. 2	기도원	김옥배	200		
여 전 도 회	제 3 회 하기수양회	7. 31~8. 2	기도원	김옥배	150		
주 일 학 교	새신자(어)	제 27 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7. 28~7. 31	본교회	안석렬 김은숙	120	20
	영 아 부	제 6 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8. 14~8. 15	본교회	윤형철	270	33
	유 치 부	제 27 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8. 25~8. 28	본교회	임승원 정연희	315	48
	유 년 부	제 27 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7. 28~7. 31	본교회	정연희 이양우	400	58
	초 등 부	제 27 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7. 28~7. 31	본교회	변규정 이승근	400	57
	중 등 부	제 18 회 하기수양회	8. 11~8. 14	기도원	박충용 김연이	220	48
	고 등 부	제 18 회 하기수양회	7. 28~7. 31	기도원	신성종 양경훈	200	41
	대 학 부	제 11 회 하기수양회	8. 6~8. 9	기도원	한재호 신성종 최낙제	120	20
	청 년 부	제 10 회 하기수양회	7. 16~7. 19	기도원	임종만	250	7
	장 년 부	제 3 회 하기수양회	8. 4~8. 6	기도원	이재영	370	34
	노 년 부	제 5 회 하기수양회	8. 18~8. 19	기도원	김창인	170	23
	산 교 부	제 2 회 하기수양회	7. 23~7. 26	기도원	최동근	90	15
	선 교 부	제 2 회 하기수련회	8. 4~8. 9	강원도훈련원	김영희 조준삼 유국남	660	4
계					3,793	492	

* - 실시

부목사 세분 새로 오셔

— 김원남 · 김창근 · 장정일목사 —

그동안 부목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세분의 부목사를 모시면서 교회는 새로 세분의 협동목사를 모시기로 했다. 세분의 협동목사는 1부나 4부 예배중 설교를 맡게 되며 한편 전교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세분은 김희보목사(전 총신대 학장), 윤영탁목사(새가정부지도, 총신교수), 신성종목사(명지대교목실장), 이종윤목사(아세아연합신학원교수)로써 우리 교회와는 모두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프로필 17 페이지에)

정상우 · 김종택목사등의 사임으로 공석이던 자리에 세분의 부목사가 새로 오셨다. 세분은 주로 식방관계 업무를 담당 하시게 되는데 김원남목사는 제1지구를, 장정일목사는 제3지구를, 김창근목사는 제5지구를 각각 담당케 됐다.

한편 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로 수고하던 김순애전도사를 제2지구 식방담당 전도사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산업전도 교육부 부지도를 면(免)하게 됐고 어린이새신자부 부지도로 겸임했던 김은숙전도사도 부지도로 면(免)하고 심방을 전담토록 했다.

따라서 어린이새신자부 부지도

에 인정옥전도사를 임명했다.

김원남목사는 1957년 전라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이래 호남 지방에서 목회 활동을 해 오시며 1965년에는 목포노회장을 역임하시고 1970년 5월 부터 백령의 진촌교회를 우리 교회에 오시기까지 시무하시며 1974년에는 인천노회장으로 피선되시기도 하셨다.

1926년생, 본적은 충남이다.

김창근목사는 강원도가 본적으로 1974년 전도사 시절부터 원주 중부장로교회에서 시무, 1975년에는 서울에 올라 오셔 논현동에 있는 영동제일교회에서 시무하시다가 1976년에 원주 신일장로교회를 개척, 우리교회에 오시기까지 시무하셨다. 지난해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 1946년생으로 사모 여순희여사와 슬하에 1남1녀가 있다.

장정일목사는 1968년 효창교회 유년부교육전도사로 시작하여 1971년에는 미아3동의 신일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 1972년에는 평안교회 중등부 ·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수고하시고 1974년에는 원남교회 전도사로 수고 하였고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는 인천신광교회의 담임교역자로 계셨다.

본적은 서울, 1944년, 사모 이명자여사와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계시다.

대지 400평 매입

교회는 현재 새성전 신축장 근처의 400평의 대지를 매입키로 했

이 매입하는 대지에는 교역자의 사택을 연립주택형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인사이동

1. 성가대

가. 임명

제이성가대	김윤옥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한경애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김은영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김성숙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서성용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김소진	앨토
제이성가대	임정옥	앨토
제이성가대	송보경	앨토
제이성가대	안명수	테너
제이성가대	현남수	테너
제이성가대	박명승	베이스
제이성가대	임현호	베이스

나. 퇴임

제이성가대	김희자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배은희	소프라노
제이성가대	이영혜	앨토
제이성가대	김창수	베이스
제이성가대	이효상	베이스
제이성가대	이성훈	베이스

2. 주일학교

가. 임명

영아부	최방희 (여)	임시교사
초등부	임상규 (남)	임시교사
초등부	심금숙 (여)	임시교사
고등부	김현철 (남)	임시교사
장세부	김조영 (여)	임시교사

나. 퇴임

영아부	한준기 (남)	
영아부	이승화 (여)	
초등부	채선아 (여)	
초등부	김수희 (여)	
고등부	안중현 (남)	
고등부	이인숙 (여)	



〈김원남목사〉



〈김창근목사〉



〈장정일목사〉

3. 심방위원회(구역 권찰회)

퇴임 **임명**
 반포 ② 김정임 김상순권사
 반포 ① 강덕수 김상순권사
 압구정 오석중 김용순

토막소식

*... 교회는 지난 7월13일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지켰다.
 *... 제이성가대(지휘: 정국진, 반주: 조희영)는 지난 7월6일 저녁 예배시 특별성가 발표회를 갖고 비발디의 「영광」을 연주했다.
 *... 성가부는 6월20일(금) 저녁 성가대가 연합하여 도봉산세일기도원에서 철야기도회로 모였다.
 강사는 선교부의 조준상전도사.
 *... 기도원은 식당 뒷산과 목사관 앞쪽 숲에 개인기도처를 마련했다.
 *... 수도노회에서 주최하는 1980년 하기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 '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준비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본 교회에서는 '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를 위한 육교 현판을 퇴제로 4가 육교에 설치했다.
 *... 제 1여전도회는 6월15일, 회원들의 일제 노방전도를 실시했고 또한 서울대학의 입원환자들에게 전도했다.
 *... 제 2여전도회는 6월 11일 시흥육아원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했다.
 *... 남전도회는 지난 7월 17일, 회원 야외예배를 한탄강에서 가졌다.
 *... 산업전도회는 지난 7월 6일 황성수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기독교실업인의 사명」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 당회 서기인 송순일장로는

그동안 친지방문으로 미국여행을 마치고 지난 7월17일 귀국하셨다.
 *... 어린이새신자부는 8월 3일 조순자선생의 담당으로 연구수업을 할 예정이다.
 *... 영아부는 제 6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기간에 중의전문대학이서행교수를 모시고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유치부는 8월24일 연구수업을 한다. 한편 지난 6월 총동원전도 기간중 전도와 일제 심방등을 통해 6월15일에는 출석인원이 300명선을 돌파했다.
 *... 유년부는 8월17일 노년부위로행사를, 8월24일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노방전도를 실시했다. 한
 *... 초등부는 면려회에서 장기결석자에게 편지쓰기를 8월 3일

에, 9일에는 회원친교회를 갖는다.
 *... 중등부는 8월10, 24일에 교회주변으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 고등부는 8월 8일에 성가대수련회를 실시한다.
 *... 청년부는 8월24일 면려회지육부주최로 설교발표회를 갖는다.
 *... 장년새신자부는 8월 17일 학습반의 학생신앙강증회를 새신자부실에서 갖는다.
 *... 산업전도교육부는 8월24일 성곡감상회를 갖는다.
 *... 선교부는 제 2학기 학생모집을 8월31일까지 하고 있다. 선교부실로 문의.
 *... 새가정부는 8월30일 교사기도회를 박성수 새가정부 부장택에서 갖는다.

각 종 통 계

1980. 7. 6 (매월 첫주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배	주일날	I 부	240	436	총세대수 3,592	
		II 부	507	1,068		
		III 부	441	790		
		IV 부	234	578		
주일	주 일 저 녁	삼 일 예 녁	343	576	신 급 별	
		삼 일 예 녁	624	962		
		어린이새신자부	27	36		
		영 아 부	147	115		
학	유	유 처 부	145	174	교 인	남 3,193
		유 년 부	211	197		여 4,839
		초 등 부	196	218		계 8,032
		중 등 부	148	143		남 1,783
교	대	고 등 부	106	124	세 려	여 3,302
		대 학 부	87	68		계 5,085
		청 년 부	72	94	유아	남 494
		장 년 새 신 자 부	70	122		여 336
교	장	장 년 부	26	265		계 830
		노 년 부	39	111	학 습	남 256
		산 업 교 육 부	35	130		여 400
		선 교 부	17	48		계 656
교	새	가 정 부	22	34	원 입	남 660
		계	3,737	6,289		여 801
						계 1,461

7.8월의 행사

- 7월 6일 정기제직회,
3-7월 제9회 농어촌 평신도 초청훈련
14-16일 교역자 수양회 (소금강)
16-19일 청년부 하기수양회 (충현기도원)
22-24일 장로수양회 (운수리)
16-19일 아세아 복음선교화대대회 (충현교회 및 영동반도
유스호스텔)
23-26일 산업전도교육부수양회 (충현기도원)
28-31일 고등부수양회 (충현기도원)
28-31일 어린이새신자부·유년부·초등부 여름성경 학교
29일 정기당회
29일~8/1일 성가부수련회 (부여 유스호스텔)
29일~8/2일 권사회·제1·제2여전도 수양회 (충현기도원)
8월 3일 정기 제직회
4-9일 선교부하기훈련 (강원도 북한선교회훈련원)
4-6일 장년부수양회 (충현기도원)
6-9일 대학부수양회 (충현기도원)
11-14일 중등부수양회 (충현기도원)
14-15일 영아부 성경학교 (충현교회)
18-19일 노년부 수양회 (충현기도원)
25-28일 유치부 여름어린이 성경학교 (충현교회)

* 편집하고 나서 *

*.....'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바짝 다가왔다. 역사적인 이 대회에 모두가 각자가 가능한 방법으로 참가하여 민족복음화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들을 손경수집사님이 알기 쉽게 간추려 주셨다. 바로 알고 참여하여 뜻깊은 8월에 이 민족과 교회와 각 개인에 큰 발전이 있는 기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7, 8월호를 묶어 봤다. 계절맞도 있지만 매월 첫주 발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앞으로는 매월 첫주 발행되어 충현지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보다 도움을 주고자 한 시도이다.

또한 9월호의 특별호를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교회설립 27주년을 맞으며 꾸미는 월간충현 9월호의 특집호를 기대해 본다.

* 1980년 월간충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조현명

편집 위원/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중주

이형수

월 간 충 현

7·8월호

제8권 제7호

통권 제79호

1972년 4월30일 창간

1980년 8월 3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주 간/윤형철

편집인/조현명

편집부장/이형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3408



재림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대환난·적그리스도의 출현 등

문 :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물론 불신자들까지도 오늘의 현실을 말세(末世)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말세란 어느 때를 말하며 그 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 하시는 날 일 것이다.

1. 과연 예수님은 재림 하실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마24 : 30; 25 : 19, 31; 26 : 64, 요 14 : 3, 행 1 : 11 등) 친구약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딤후 3 : 16, 벧후 1 : 21) 정화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질 것 (마 5 : 18) 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렐 3 : 20, 살전 4 : 15, 16, 살후 1 : 7, 10, 딤후 2 : 13, 히 9 : 28 등)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2. 재림전에 일어날 일들은?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에 앞서 몇가지 중대한 사변(事變)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① 복음이 세계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마 24 : 14, 막 13 : 10, 롬 11 : 25)

이는 이방인의 상당한 수가 천국에 들어올 것을 증거하는 말씀과 부합된다. (마 8 : 11)

②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구약, 신약은 다 같이 이스라엘의 장래 회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슥 12 : 10; 13 : 1~6, 롬 11 : 25~29, 고후 3 : 15, 16)

③ 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 시대의 끝에는 최악의 깊은 흑암이

이 땅을 덮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보지 못하던 전무(前無)한 대배교(大背敎)와 대환란이 성도들의 인내를 시험 할 것을 말씀함이다. (마 24 : 9~12, 눅 21 : 23, 24, 살후 2 : 3, 딤후 3 : 1~5)

④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악의 세력은 마침내 배도와 대환란을 일으키는 적 그리스도로 인격(人格)화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 적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단 11 : 36),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살후 2 : 3, 4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함), 사도 「요한」은 정치적이며 또한 종교적인 적 그리스도로 (계 13 장 바다와 육지의 두 짐승) 묘사하고 있다.

⑤ 징조와 기사가 있을 것이다. (마 24, 막 13, 눅 21 참조)

ㄱ. 각처에 전쟁, 흉년, 지진이 일어나며

ㄴ.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사와 이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며

ㄷ. 대 환란과 큰 핍박으로 많은 성도가 순교 할 것이며

ㄹ. 하늘의 일월성신(日月星辰)에 무서운 징조가 일어나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게 될 것이며

ㅁ.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3. 최후 재림의 날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셔서”(행 1 : 11),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산 자들은 변형시키시어 의인(義人)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신천 신지(新天新地)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사는 축복을 주실 것이요, 악인(不仁者)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 못에 던지우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4. 우리의 각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경성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마 25 : 4) 둘 같이 주님 맞이 할 준비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 창 근 목사 (심방담당)

실로암
못가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 : 1 - 8〉